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1 pp. 64-74, 2019

https://doi.org/10.5762/KAIS.2019.20.1.64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노인의 자살생각을 높이는 지각된 짐스러움과 절망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역할

전영선, 허창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The Role of Social Support for the Influences of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Hopelessness on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Young-Sun Jeon, Chang-Goo Heo*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지각된 짐스러움과 절망감을 감소시킬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안하고, 사회적 지지가 지각된 짐스러움과 절망감을 매개로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 중 가족지지는 노인의 지각된 짐스러움을 줄여줌으로써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감소된 짐스러움이 절망감을 감소시켜 노인의 자살생각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는 노인의 지각된 짐스러움 및 절망감을 줄여줌으로써 자살생각을 줄여줄 뿐 아니라, 감소된 짐스러움이 절망감을 낮춤으로써 노인의 자살생각을 줄여주고 있었다. 지역사회지지는 노인의 지각된 짐스러움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으나 노인이 느끼는 절망감을 줄여줌으로써 자살생각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가족, 친구, 지역사회)은 자살생각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를 보여주기보다, 다른 부정적인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살생각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고령화 사회와 핵가족화 사회에서 자칫 소원해 질 수 있는 가족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노인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지원정책의 이용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were verifying the influences of social support(family, friend, community) on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hopelessness and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hopelessness between social support and suicidal ideation. In results, family support reduced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through mediating role of perceived burdensomeness as well as serial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hopelessness. Friend support reduced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through parallel and serial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hopelessness. Community support reduced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through mediating role of hopelessness. Social support show not direct effect but in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through reduction of negative influencing factor(burdensomeness, hopelessness). In conclusion, we proposed it were needed that various efforts which improve the relation between family members in the age of nuclear family and ageing era, social policy support which development social network of the elderly, and the efforts which keep informed the social policy support of the community.

Keywords : Suicidal Ideation, Perceived Burdensomeness, Hopelessness, Social Support, Family Support, Friend Support, Community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 Chang-Goo Heo(Daegu Catholic Univ.)
Tel: +82-053-850-3231 email: willcando@gmail.com
Received October 1, 2018 Revised (1st October 25, 2018, 2nd November 22, 2018)
Accepted January 4, 2019 Published January 31, 2019

1. 서론

인간의 평균 수명은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노인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가족의 문제일 수 있으며, 크게는 사회 및 국가적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특히 퇴직, 배우자의 죽음, 자녀들과의 관계 등 노인이 겪는 여러 가지 삶의 위기들로 인한 다양한 갈등과 긴장관계로 인해 노인의 우울증과 자살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1,2,3].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60세 이후 노인의 자살은 인구 10만 명당 평균 55.6명으로 전체평균 25.6명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4].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2015년 현재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5]. 더욱이 우리나라는 노인층을 비롯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나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노인자살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6]. 이처럼 노인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자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소홀했다. 실례로 국내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연구와 비교할 때, 노인자살에 관한 논문은 양적으로 매우 적었고 실제 관심을 보인 시기도 2000년 이후 부터이다[7].

이렇게 노인자살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노인의 자살위험성을 파악하거나 치료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때문일 수 있지만, 노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사회적 은폐의 경향, 그리고 노인의 자살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8]. 따라서 노인자살은 정부나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책 모색이 필요한 사회문제이며, 노인의 자살 이유를 밝히고 자살 위험도가 높은 노인을 파악하여 예방하려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살생각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심리적 변인 및 사회적 변인의 영향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노인자살과 관련된 인구사회적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심리적 변인의 증분설명력과 사회적 개입의 추가적인 자살감소 효과를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자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방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예방적 접근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1 노인자살의 인구사회적 원인

노인의 자살생각에는 개인적인 특성 및 거시적인 경제·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9]. 먼저 성별은 노인자살의 예측변인 중 하나로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사회적 고립을 많이 경험하고 그로인해 자살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11].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자살시도가 3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자살률은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12].

노인의 자살률은 연령에서도 차이가 있다. 75세 미만의 전기 고령노인보다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노인에게서 자살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13], 최형임[14]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종교적 믿음은 자살의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5]. 선행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노인들은 종교가 없는 노인들에 비해 총체적 삶의 질,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도가 높게 나타났다[16,17]. 이런 결과들은 종교가 개인의 삶에서 소통할 수 있는 출구 역할을 할 수 있고,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16].

교육수준 요인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다[18,19,20]. 이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만큼 낮은 지위에 속하는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많고, 또한 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할 가능성이 많은 것과 관련성이 있다[21].

신체적 질환 등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노인의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악화될수록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19,22], 노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나쁘게 지각할수록 우울 및 자살생각이 높아졌다. 즉 노인의 객관적 건강수준 뿐 아니라 주관적 건강지각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3].

경제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수의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24]. 노년기에는 퇴직 후 새로운 상황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되고 이는 노인의 자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9]. 서동우의 연구[22]에서 무직자가 생애에 걸쳐 자살생각과 자살계획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수, 권이경의 연구[25]에서도 경

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다른 집단에 비해서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노인자살의 심리적 원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강력한 단일변수는 우울로 알려져 있다[26,27]. 한편,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여러 단계의 인지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인지적 판단 중에서 자살결정에 이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부정적 인지가 있다[28].

부정적 인지 중에서 절망감(hopelessness)이란 어떠한 희망도 바랄 수 없다고 여겨 모든 희망을 아주 버리게 된 느낌이며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감이다. 이러한 절망감은 노인의 자살생각[29,30] 및 다양한 자살행위의 위험요인으로 보고되었다[30,31,32].

절망감에 더하여, Joiner[33]는 대인관계이론을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 지각된 짐스러움(perceived burdensomeness)을 주장했다. 지각된 짐스러움이란 자신이 무기력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지각하고 자신의 죽음이 가족과 친구 혹은 사회에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자기지각이다[34]. 지각된 짐스러움은 연령이 증가 할수록 높게 나타나며 자살생각과의 관계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5]. 국내 연구에서도 노인과 청소년의 비교 연구에서 지각된 짐스러움이 청소년보다 노인에게 더 많은 자살생각의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36]. 하정미, 송영지, 남희은[37]은 노인에게 지각된 짐스러움이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고 해석하게 함으로써,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1.3 자살생각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역할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되고,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인자가 될 수 있다[38,39]. McIntosh 등[40]은 젊은 연령층에 비해 노년기에는 사회적 지지망 및 가족이나 친구와의 접촉이 감소하게 되며, 이러한 관계의 감소가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연구[41,42,43]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이러한 직접효과 이외에도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4,45].

사회적 지지는 왜 자살생각을 줄여주는 것인가? 추경진, 이승연[36]의 연구에 따르면 지각된 짐스러움과 절망감은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을 증가킬 뿐 아니라 자살생각을 직접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지각된 짐스러움은 가족, 친구와 같은 주변인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짐스러움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지가 제공된다면 지각된 짐스러움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양경, 고성희, 김귀분, 정승희[46]는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배지연, 김원형, 윤경아[47]의 연구에서도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낮을수록 노인들이 우울과 자살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경진, 이승연[36]은 지각된 짐스러움이 절망감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외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짐스러움 및 자살사고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가,나]에서 낮은 사회적 지지와 높은 지각된 짐스러움이 자살사고를 예측했으며[나],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지각된 짐스러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살사고의 관계를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지각된 짐스러움을 통해 절망감을 줄여줌으로써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경로를 가정할 할 수 있다.

2. 연구목적 및 가설

2.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자살생각의 주요 심리적 요인으로 확인된 지각된 짐스러움과 절망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추경진, 이승연[39]의 연구에서 보여준 지각된 짐스러움이 절망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연구모형을 확장하여 사회적 지지가 지각된 짐스러움과 절망감 모두를 매개로 자살생각을 줄일 것이라는 매개과정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지각된 짐스러움이 절망감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인 이중매개효과를 보여주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기능이 발생하

는 매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한다.

2.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가족, 친구, 지역사회) 별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가족지지는 지각된 짐스러움과 절망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친구지지는 지각된 짐스러움과 절망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지역사회지지는 지각된 짐스러움과 절망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사회적 지지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지각된 짐스러움과 절망감이 순차적으로 이중 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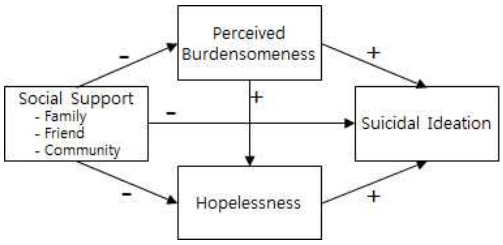

Fig. 1. Conceptual model of the research

3. 연구대상 및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K도와 D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 내에 소재한 노인정과 요양원, 양로원, 공원에 약 일주일(2014년 4월 2일-9일) 간 방문하여 노인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낮 시간(10시~6시) 동안 총 26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이 부실한 2부를 제외한 267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전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실시과정에서 정신질환 혹은 기질적 뇌장애 증후가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일반 노인들을 선별하여 진행하였다. 도중에 힘들어 하시는 노인들에게는 설문을 중단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설문지 작성을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노인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질문, 기다림, 재질문, 설명 등의 방식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조사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는 연구자와 사전에 교육받은 조사원 3명이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 내용 중 자살생각, 짐스러움, 절망감 등의 문항으로 인해 타인이 있을 경우 답변 내용의 노출을 우려할 수 있으므로 노인 한 분과 조사원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에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3.2 연구도구

3.2.1 인구사회적 요인

노인자살 관련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건강상태, 경제적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2.2 자살생각

노인의 자살생각은 Beck, Kavacs 및 Weissman[51]이 개발한 Scale for Suicide Ieation(SSI)를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52]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SI는 자살시도 전의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이 검사결과가 자살위험에 대한 임상가의 평가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51]. 총 19개의 문항으로 3점 척도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자살사고가 심한 경우 2점, 보통인 경우 1점, 없는 경우가 0점으로 최소점수는 0점이고 최대점수는 38점이다. 신뢰도(Cronbach's α)는 추경진, 이승연[36]의 연구에서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3.2.3 지각된 짐스러움

지각된 짐스러움은 Van Orden, Witte 및 Gordon[53]이 개발한 대인관계 욕구질문지(INQ: Interpersonal Needs Questionaire)를 조민호[54]가 번안한 척도에서 지각된 짐스러움 1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본래 7점 척도이나 연구대상이 노인인 점을 고려하여 5점 척도로 수정한 추경진, 이승연[36]의 연구 척도를 준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55세 이상의 노인(평균 74세)을 대상으로 한 Cukrowicz, Cheavens, Van Orden,

Ragain 및 Cook[55]의 연구에서 .90이었으며, 추경진, 이승연[36]의 연구에서는 .85,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3.2.4 절망감

절망감은 Beck과 Weissman[56]이 개발한 BHS(Beck Hopelessness Scale)를 신민섭 등[5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써 무망감을 측정하는 11개 문항과 희망감을 측정하는 9개의 역채점 문항을 합쳐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1점)', '아니오(0점)'로 응답하게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절망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65세 이상의 재가노인(65-69세, 44.1%)을 대상으로 한 엄태완[5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8이었으며 추경진, 이승연[36]의 연구에서는 .86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3.2.5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Gregory, Nancy, Sara 및 Gordon[58]에 의해 개발된 MSPSS(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김옥선[59]이 연구목적에 맞게 5점 척도로 재구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김옥선은 사회적 지지의 세 가지 하위척도를 가족, 친구, 지역사회로 분류하였으며,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복지기관이나 동사무소를 포함한 사회복지사, 지역봉사자, 의사, 성직자 등으로 규정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는 김옥선의 연구에서 .92였으며,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가족지지 .91, 친구지지 .87, 지역사회지지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2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별로는 가족지지 .84, 친구지지 .86, 지역사회지지 .99로 나타났다.

3.3 자료분석

기술통계분석으로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빈도와 주요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고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했다.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모든 분석과정에서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변인의 영향력을 우선적으로 통제하였다.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지역사회)가 지각된 짐스러움 및 절망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SPSS macro인 PROCESS[60]의 Model 6을 실시하였다. PROCESS의 Model 6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여러 매개변인의 병렬적 매개효과(parallel mediation effect)는 물론, 순차적인 매개효과(serial mediation effect)를 모두 확인해 준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는 Bootstrap을 10,000회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95% 신뢰구간을 확인하였다.

4. 연구결과

4.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지각된 짐스러움, 절망감 및 사회적 지지의 점수는 Table 1과 같다.

사후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위주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절망감이 높고(p<.05), 지역사회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짐스러움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p<.05), 지역사회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p<.001).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짐스러움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었으며(p<.001), 무학과 초졸 및 대졸이상에서 좌절감이 높게 나타났다(p<.001). 종교에 따라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에 짐스러움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p<.05), 지역사회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사후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 없었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살생각(p<.001), 짐스러움(p<.001), 절망감(p<.001) 및 지역사회 지지(p<.001)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만족도에 따라서는 경제상황이 불만족스러울수록 자살생각(p<.001), 짐스러움(p<.001), 절망감(p<.001)이 높고, 가족지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4.2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인구사회적 변인 중에서 교육수준(r=-.12, p<.05), 건강상태(r=-.33, p<.01), 경제적 만족도(r=-.31, p<.01)가 종속변인인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토대로,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에서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적 만족도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이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Table 1. Suicidal ideation, perceived burdensomeness, hopelessness, and social support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		N	%	Suicidal Ideation	Psychological Factor		Social Support		
					Burdensomeness	Hopelessness	Family	Friend	Community
Age(years)	69 less	27	10.1	0.48±0.44	3.16±0.72^{a}	0.56±0.33^{a}	2.73±0.89	2.66±1.07	1.68±1.10^{a}
	70~79 less	130	48.7	0.53±0.47	3.08±0.59^{a}	0.69±0.30^{ab}	2.93±0.86	2.64±0.90	2.10±1.24^{ab}
	80~89 less	95	35.6	0.53±0.44	3.29±0.57^{a}	0.80±0.21^{b}	2.83±0.90	2.51±0.95	2.68±1.50^{bc}
	90 over	15	5.6	0.47±0.34	3.45±0.46^{a}	0.83±0.23^{b}	2.85±1.06	2.47±0/98	3.55±1.52^{c}
F-value				0.17	3.25*	6.94***	0.46	0.49	9.59***
Gender	Male	156	58.4	0.56±0.49	3.12±0.56	0.70±0.30	2.92±0.86	2.55±0.95	1.94±1.22
	Female	111	41.6	0.48±0.39	3.28±0.56	0.76±0.25	2.80±0.91	2.64±0.93	2.92±1.46
t-value				1.35	-2.05*	-1.83	1.11	-0.77	-5.77***
Academic Attainment	≥college or higher	10	3.7	0.46±0.45	2.70±0.62^{a}	0.67±0.32^{ab}	3.28±0.90	2.88±0.96	1.73±1.07^{a}
	High school	34	12.7	0.44±0.49	3.01±0.71^{ab}	0.58±0.34^{a}	2.91±0.91	2.87±0.99	2.24±1.24^{a}
	Middle school	46	17.2	0.38±0.42	3.00±0.58^{ab}	0.59±0.31^{a}	3.03±0.85	2.63±0.87	1.96±1.26^{a}
	Elementary school	109	40.8	0.59±0.43	3.22±0.56^{b}	0.78±0.24^{ab}	2.83±0.90	2.56±0.92	2.38±1.41^{a}
	none	68	25.5	0.55±0.45	3.40±0.50^{b}	0.81±0.21^{b}	2.72±0.86	2.42±0.96	2.69±1.54^{a}
F-value				2.29	6.38***	8.56***	1.45	1.58	2.51*
Religion	Yes	157	58.8	0.54±0.46	3.25±0.58	0.73±0.27	2.79±0.90	2.56±0.91	2.66±1.48
	No	110	41.2	0.49±0.43	3.09±0.60	0.72±0.30	2.98±0.85	2.62±0.98	1.89±1.16
t-value				-1.04	-2.24*	-0.18	1.69	0.49	-4.76***
Marriage	Married	162	60.7	0.49±0.43	3.06±0.62^{a}	0.69±0.29^{a}	3.08±0.81^{a}	2.69±0.96	2.06±1.20^{a}
	Single	2	0.7	0.55±0.78	3.73±0.10^{a}	0.80±0.28^{a}	2.00±1.41^{a}	2.00±0.00	3.00±2.83^{a}
	Divorced	5	1.9	0.43±0.41	3.47±0.61^{a}	0.50±0.29^{a}	2.05±1.33^{a}	1.95±0.97	2.20±1.30^{a}
	Bereaved	98	36.7	0.57±0.47	3.37±0.49^{a}	0.80±0.24^{a}	2.57±0.87^{a}	2.46±0.88	2.80±1.59^{a}
F-value				0.71	6.83***	4.67**	9.73***	2.30	6.11***
Health	Healthy	76	28.5	0.33±0.39^{a}	2.86±0.57^{a}	0.57±0.31^{a}	3.05±0.93	2.73±1.05	2.07±1.25^{a}
	Normal	63	23.6	0.46±0.40^{a}	3.14±0.50^{b}	0.72±0.27^{b}	2.86±0.76	2.65±0.94	1.96±1.24^{a}
	Unhealthy	128	47.9	0.66±0.45^{b}	3.40±0.57^{c}	0.82±0.22^{c}	2.76±0.90	2.47±0.86	2.70±1.49^{b}
F-value				15.79***	23.14***	21.49***	2.59	1.91	8.42***
Economic Satisfaction	Very Satisfied	9	3.4	0.36±0.28^{a}	2.61±0.63^{a}	0.49±0.32^{a}	3.80±0.79^{c}	3.03±1.08^{a}	2.42±1.30^{a}
	Satisfied	34	12.7	0.47±0.48^{ab}	2.86±0.73^{ab}	0.58±0.32^{a}	3.40±0.89^{bc}	2.86±0.86^{a}	2.64±1.39^{a}
	Normal	92	34.5	0.35±0.36^{a}	3.01±0.51^{ab}	0.64±0.29^{ab}	3.13±0.71^{b}	2.74±0.95^{a}	2.00±1.14^{a}
	Unsatisfied	55	20.6	0.55±0.42^{ab}	3.27±0.56^{bc}	0.82±0.22^{bc}	2.77±0.81^{ab}	2.39±0.88^{a}	2.20±1.50^{a}
	Very Unsatisfied	77	28.8	0.75±0.47^{b}	3.54±0.42^{c}	0.86±0.18^{c}	2.27±0.76^{a}	2.37±0.91^{a}	2.72±1.56^{a}
F-value				10.14***	17.10***	14.65***	21.61***	3.62**	3.42**
Total		267	100	0.52±0.45	3.19±0.60	0.72±0.28	2.87±0.88	2.59±0.94	2.35±1.41

$^{**}p<0.01$, $^{***}p<0.001$, Score scale : 1(very disagree) ~ 5(very agree),
1) *Mean±SD* 2) Different letters o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	1									
2	.28**	1								
3	-.35**	-.42**	1							
4	.06	.26**	.04	1						
5	-.17**	-.26**	.16**	-.22**	1					
6	-.13*	-.17**	.25**	-.15*	.22**	1				
7	.20**	.13*	-.29**	.14*	-.39**	-.45**	(.89)			
8	.25**	.11	-.30**	.01	-.37**	-.41**	.62**	(.93)		
9	.18**	.22**	.01	.12*	-.03	.24**	-.20**	-.28**	(.82)	
10	.02	-.08	-.12*	.06	-.33**	-.31**	.55**	.54**	-.16**	(.93)

$^{*}p<.05$, $^{**}p<.01$
Digits in parentheses are reliability coefficients of the scales
1.Age 2.Gender(male=0, female=1) 3.Academic Achievement 4.Religion(no=0, yes=1) 5.Health 6.Economic Satisfaction 7.Perceived Burdensomeness 8.Helplessness 9.Social Support 10.suicidal Ideation

한편,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지각된 짐스러움(r=.55, p<.01)과 절망감(r=.54, p<.01)은 자살생각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지각된 짐스러움(r=-.20, p<.01)과 절망감(r=-.28, p<.01) 및 자살생각(r=-.16, p<.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4.3 사회적 지지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지각된 짐스러움과 절망감의 매개효과

사회적 지지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지각된 짐스러움과 절망감이 매개하는가를 하위차원(가족지지, 친구지지, 지역사회지지) 별로 확인하였다.

먼저 가족지지 포함 모형에서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가족지지는 지각된 짐스러움을 감소시키지만(B=-.17,

p<.01), 절망감 및 자살생각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지각된 짐스러움은 절망감(B=.21, p<.01)과 자살생각(B=.26, p<.01)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절망감은 자살생각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50, p<.01).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Bootstrap 95% 신뢰구간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먼저, 가족지지가 지각된 짐스러움을 줄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유의했으나(-.14, -.04), 절망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가설 1 부분지지). 한편, 가족지지가 지각된 짐스러움과 절망감을 감소시켜 자살생각을 줄이는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06, -.02)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4 지지).

다음으로 친구지지와 관련된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친구지지는 지각된 짐스러움(B=-.10, p<.01)과 절망감(B=-.05, p<.01)을 감소시키지만 자살생각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지각된 짐스러움은 절망감(B=.20, p<.01)과 자살생각(B=.26, p<.01)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절망감은 자살생각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49, p<.01). Bootstrap을 통해 두 매개변인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친구지지가 지각된 짐스러움(-.11, -.02)과 절망감(-.10, -.02)을 줄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모두 유의했으며(가설 2 지지), 지각된 짐스러움과 절망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도 유의(-.04, -.01)했다(가설 4 지지).

지역사회지지는 절망감을 감소시키지만(B=-.02, p<.05), 지각된 짐스러움 및 자살생각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지각된 짐스러움은 절망감(B=.22, p<.01)과 자살생각(B=.26, p<.01)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절망감은 자살생각(B=.49, p<.01)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지역사회지가 절망감을 줄여줌으로써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유의(-.07, -.01)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3 부분지지, 가설 4 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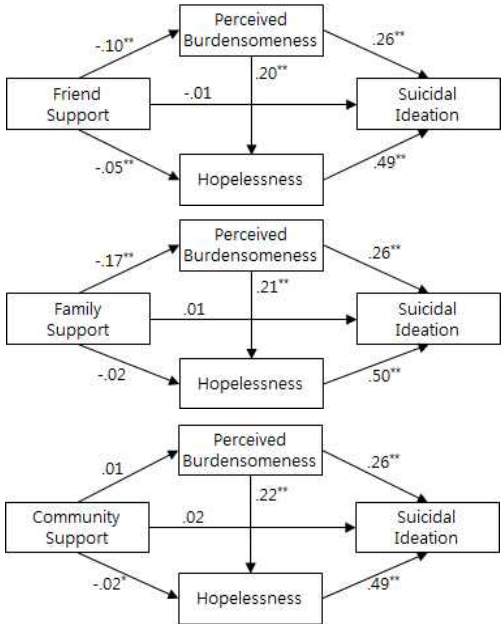

Fig. 2. Path coefficients of research models
*p<.05, **p<.01. Path coefficients are unstandardized coefficient (B). Controled Variable(Academic Achievement, Health, Economic Satisfaction).

5.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들의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노

Table 3. Indirect effect between social support and suicidal ideation

Antecedent	Mediator(s)	Criterion	Indirect Effect	Bootstrap (10,000)	
				LLCI	ULCI
Family	→ Burdensomeness →	Suicidal Ideation	-.08	-.14	-.04
	→ Hopelessness →	Suicidal Ideation	-.02	-.05	.02
	→ Burdensomeness → Hopelessness →	Suicidal Ideation	-.03	-.06	-.02
Friend	→ Burdensomeness →	Suicidal Ideation	-.05	-.11	-.02
	→ Hopelessness →	Suicidal Ideation	-.05	-.10	-.02
	→ Burdensomeness → Hopelessness →	Suicidal Ideation	-.02	-.04	-.01
Community	→ Burdensomeness →	Suicidal Ideation	.01	-.08	.05
	→ Hopelessness →	Suicidal Ideation	-.04	-.07	-.01
	→ Burdensomeness → Hopelessness →	Suicidal Ideation	.00	-.01	.02

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입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노인의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지각된 짐스러움과 절망감을 감소시킬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안하고, 사회적 지지의 증가가 지각된 짐스러움과 절망감을 매개로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지각된 짐스러움은 절망감을 높이고 있었으며, 이 두 변인은 모두 노인의 자살생각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는 노인의 지각된 짐스러움을 줄여줌으로써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감소된 짐스러움으로 인해 절망감을 감소시켜 노인의 자살생각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짐스러워지는 것을 우려하는 노인에게 가족의 지지가 그러한 짐스러움을 낮춰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친구지지는 노인의 지각된 짐스러움 및 절망감을 줄여줌으로써 자살생각을 줄여줄 뿐 아니라, 감소된 짐스러움이 절망감을 낮춤으로써 노인의 자살생각을 줄여주고 있었다. 즉, 노인에게 있어 원만한 친구관계와 이들로부터의 지지가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모두를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엄태완[42], 오인근[43]의 연구에서도 가족 등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고립된 노인일수록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미자, 조성제[61]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친밀도가 낮을수록 노인의 자살충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사회지지는 노인의 지각된 짐스러움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으나 노인이 느끼는 절망감을 줄여줌으로써 자살생각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요인(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의사, 성직자 등)들은 노인이 현재 개인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짐스러움을 줄여주지는 못하지만 노인이 미래에 대해서 가지는 부정적 전망을 줄여줌으로써 자살생각을 낮추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약화된 가족지지체계를 대신하여 지역사회가 노인의 사회적 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62], 최근 세계 각국은 혈연중심 가족지지망의 한계를 넘어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사회적 지지망 확충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63,64]. 한편, 모든 사회적 지지 요인들(가족, 친구, 지역사회)은 자살생각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를 보여주기보다, 다른 부정적인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간접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통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자면, 첫째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인 자살문제에 대해 노인의 심리적 변인인 지각된 짐스러움과 절망감과 함께 사회적 변인인 사회적 지지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변인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심리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변인들이 순차적으로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겠다. 둘째, 노인의 자살생각에 지각된 짐스러움과 절망감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하였다. 셋째, 노인 자살을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복지정책, 시설, 예산 등의 측면에서 제안되고 있지만, 그 뿐 아니라 노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에 가족, 친구, 지역사회의 지지적인 태도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와 핵가족화 사회에서 자칫 소원해질 수 있는 가족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나 각급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대인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할 뿐아니라 그러한 지역사회의 지원과 서비스를 노인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제공하려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 의미를 해석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전국적인 조사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 국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 다뤄진 변인들이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심리사회적 변인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를 요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로부터 지각된 짐스러움, 절망감 및 자살생각에 이르는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였으나,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횡단자료로써 이러한 변인들의 인과관계가 논리적으로 입증되었을 뿐 종단으로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지각된 짐스러움과 절망감을 낮춰 자살생각을 줄여줄 수 있는 가능한 경로를 확인했을 뿐이며, 사회적 지지는 지각된 짐스러움이나 절망감 뒤에서 매개역할을 하거나 조절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노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과 노인의 자살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입가능성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노인정, 요양원, 양로원, 공원 등에서 접할 수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거동할 수 없는 노인이나, 위의 시설을 이용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노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이는 자살생각이 더 높을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의 노인들이 제외되고 보다 일반적인 노인이 많이 포함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자살생각이라고 하는 민감한 종속변인에 대한 응답범위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을 수 있으며, 그로인해 본 연구결과를 현재 자살생각이 높은 노인에게는 적용하는데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J. Y. Kim, S. H. Han, “The Effect of Lifelong Learning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uccessful Aging in the Elderly,”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34, no. 2, pp. 179-208, 2013.
DOI: http://doi.org/10.18612/cnujes.2013.34.2.179

[2] H. S. Jeong, "A Study on the Philosophical to the Problems of Korean Society’s Aged Man," *Journal of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vol. 71, pp. 335~354, 2013.

[3] C. H. Hahm, S. O. Kang, “Study of Elderly Problems as the Social Problems and the Leisure Concept for the Elderly Lif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vol. 22, no. 5, pp. 177~188, 2008.

[4] Statistics Korea, The causes of death statistics 2016.

[5] OECD Health Statistics 2015.

[6] H. Y. Lee, S. H. Cho, "Factor Affecting the Suicidal Ideation of Elderly in Gyeonggi Province,"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43, pp. 191~216, 2012.

[7] S. M, Hong, Y. S. Kang, H. K. Kim,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Elderly Suicide in Korea,”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1, pp. 5752-5761, 2013.

[8] H. S. Kim, "Sociological Understandings of Elderly Suicide and Its Primary Preventio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23, no. 2, pp. 167~187, 2000.

[9] K. S. Choi, “A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o-economic Factors of the Regions and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1, pp. 584-594, 2016.

[10] S. Emed, C. Laura, “Geder in early suicide: analysis of coroners inquest of 200case of elderly suicide in Cheshire 1989-2001,”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 18, pp. 1082-1087, 2003.
DOI: https://doi.org/10.1002/gps.1012

[11] D. Harwood, R. Jacoby, “Suicidal Behaviour among the Elderly,”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vol. 18, pp. 275-289, edited by Hawton, Keith. NY: John wiley & Sons. Ltd. 2000.

[12] J. Y. Bae, “Case Study about Elderly Suicide,” *Journal of Welfare for th Aged*. vol 23, spring, pp. 65-82, 2004.

[13] J. L. McIntosh, “Suicide prevention in the elderly (age 65 –99),”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25, no. 1, pp. 180-192, 1995.

[14] H. I. Choi,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Elderly Suicidal Ideation,”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2008.

[15] A. H. Patricia, “Evidenced-based protocol: Elderly Suicide-Secondary Prevention,”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vol. 29, JUN, pp. 6-17, 2003.
DOI: https://doi.org/10.3928/0098-9134-20030601-05

[16] M. S. Kim, M. J. Park, “The Impact of Religion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0, no. 2, pp. 29-47, 2000.

[17] C. J. Kim, “Life Satisfaction among the Rural Elderly: With a Special Focus on the Impact of Religious Lif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 25, no. 1, pp. 281-301, 2011.

[18] H. K. Kim, S. H. Ko, S. H. Chung, "Suicidal Ideation and Risk Factors among the Elderly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4, no. 1, pp. 82~92, 2010.

[19] H. S. Kim, “A Study on Epistemology of Korean Elder's Suicidal Thought,”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2, no. 1, pp. 159-172, 2002.

[20] H. I. Choi, “A Study of Factor Influencing on Elderly Suicide Thinking,”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vol. 12, no. 3, pp. 273-298, 2006.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4.8.2.149.

[21] R. W. Maris, “The Relationship of nonfatal suicide attempts to completed suicides,” in Maris, R. W., Berman, A. L., Maltsberger, J. T. and Yufit, R. I. (Eds.), *Assessment and Reduction of Suicide*, New York: Guilford Press, 362-380, 1992.

[22] D. W. Seo, “National Attitude Survey of life respect and suicide.” *Korea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 2005 Symposium.*

[23] E. J. Kang, “Factor Related to Suicide Ideation by Age Group,” *Helath-Welfare Policy Forum*, vol. 107, pp. 81-86, 2005.

[24] B. R. Lee, J. K. Lee,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economic and social participation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old adult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1, no. 2, pp. 351-377, 2016.

[25] H. S. Kim, L. K. Kwon,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Suicide Rates and Socio-economic Factors in Korea : centering around the Trend of Changes in 1990-2010,"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6, pp. 236-245, 2013.

DOI: http://doi.org/10.5392/JKCA.2013.13.06.236

[26] Y. Conwell, E. D. Caine, K. Olson, "Suicide and Cancer in Later Life,"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vol. 41, no. 12, pp. 1334-1339, 1990.
DOI: https://doi.org/10.1016/S0006-3223(02)01347-1

[27] A. J. Friedhoff, et 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Depression in Later Life,"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 268, no. 8, pp. 1018-1024, 1992.
DOI: https://doi.org/10.1001/jama.1992.03490080092032

[28] R. F. Baumeister,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vol. 97, pp. 90-113, 1990.

[29] H. S. Kim, B. S. Kim, "A Path Analysis on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9, no. 3, pp. 801-818, 2008.

[30] T. R. Lynch, J. S. Cheavens, J. Q. Morse, M. Z. Rosenthal, "A model predicting suicidal ideation and hopelessness in depressed older adults: The impact of emotion inhibition and affect intensity," *Aging & Mental Health*, vol. 8, no. 6, pp. 486-497, 2004.
DOI: http://dx.doi.org/10.1080/13607860412331303775

[31] A. T. Beck, G. Brown, R. K. Berchick, B. L. Stewart, R. A. Steer, "Relationship Between hopelessness and ultimate suicide: a replication with psychiatric out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47, no. 2, pp. 190-195, 1990.
DOI: https://doi.org/10.1176/ajp.147.2.190.

[32] G. K. Brown, A. T. Beck, R. A. Steer, J. R. Grisham, "Risk factors for suicide in psychiatric out-patient: A 20-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9, pp. 371-377, 2000.
DIO: http://dx.doi.org/10.1037/0022-006X.68.3.371

[33] T. Joiner, "*Why people die by suicid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34] T. E. Joiner, K. A. Van Orden, T. K. Witte, E. A. Selvy, J. D. Riverio, R. Lewis, M. Rudd, "Main rediction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Empirical tests in two samples of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118, no. 3, pp. 634-646, 2009.
DOI: http://dx.doi.org/10.1037/a0016500

[35] K. A. Van Orden, M. E. Lynam, D. Hollar, T. E. Joiner, "Perceived burdensomeness as an indicator of suicidal symptoms," *Cognitive Therapy & Research*, vol. 30, no. 4, pp. 457-467, 2006.
DOI: http://psycnet.apa.org/doi/10.1007/s10608-006-9057-2

[36] K. J. Chu, S. Y. Le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Burdensomeness,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and Elder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5, no. 3, pp. 31~53, 2012.

[37] J. M. Ha, Y. J. Song, H. U. Nam, "The Effect of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Failed Belongingness to Elderly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5, pp. 65-84, 2012.

[38] M. S. Choi,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Mental Health, Perceived Social Support &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According to Purpose in Lif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6, no. 2, pp. 363~377, 2011.
DOI: https://doi.org/10.17315/kjhp.2011.16.2.008

[39] S. S. Koo, O. H. Jung, S. H. Jang, "The Relationships of Ego-Identity,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 11, no. 9, pp. 225~237, 2011.
DOI: https://doi.org/10.5392/JKCA.2011.11.9.225

[40] J. L. McIntosh, J. F. Santos, R. W. Hubbard, J. C. Overholser, "*Elder Suicide Research Theory and Treat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41] S. I. Kim,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of Elderly Participate in Physical Activity,"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1, no. 1, pp. 333~344, 2012.

[42] T. W. Eom, "Elderly Suicide and It`s Related Factors : Focused o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Mastery in the Effects of Hopelessness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9, no. 2, pp. 355~379, 2007.
DOI: https://doi.org/10.20970/kasw.2007.59.2.014

[43] I. G. Oh, "The impact of social Network and Hopelessness on Suicide Ideation among the Low-Income Adult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44, pp. 111-130, 2009.

[44] G. Y. Lee, E. H. Cho, "A Study on the Effect of Main Variables to the Suicidal Ideation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 Focused on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Social Support,"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3. no. 1, pp. 162-189, 2013.
DOI: https://doi.org/10.15709/hswr.2013.33.1.162

[45] D. B. Kim, S. Y. Park,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 and Suicidal ideation : Verifying of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24, pp. 109-129, 2010.

[46] Y. G. Yoo, S. H. Ko, K. B. Kim, S. H. Chung,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Self Esteem in Elderl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16, no. 1, pp. 102~110, 2004.

[47] J. Y. Bae, W. H. Kim, K. A. Yoon, "Depression, suicidal thoughts and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3, no. 3, pp. 59-73, 2005.

[48] T. E. Joiner, K. A. Van Orden, T. K. Witte, E. A. Selby, J. D. Ribeiro, R. Lewis, M. D. Rudd, "Main prediction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Empirical tests in two samples of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118, no. 3, pp. 634-646, 2009.
DOI: https://doi.org/10.1037/a0016500

[49] H. Christensen, P. J. Batterham, A. J. Mackinnon, T. Donke, A. Soubelet, "Predictors of the risk factors for suicide identified by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ur," *Psychiatry Research*. vol. 219, no. 2, pp. 290-297, 2014.
DOI: http://dx.doi.org/10.1016/j.psychres.2014.05.029

[50] D. W. Hollingsworth, et al., "The indirect effect of perceived burdensom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ces of social support and suicide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vol. 66, no. 1, pp. 9-16, 2018.

DOI: https://doi.org/10.1080/07448481.2017.1363764

[51] A. T. Beck, M. Kovacs, A. Weissman,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 Psychology*, vol. 47, no. 2, pp. 343-352, 1979.
DOI: http://dx.doi.org/10.1037/0022-006X.47.2.343

[52] M. S. Shin, K. B. Park, K. J. Oh, Z. S. Kim, "A Study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9, no. 1, pp. 1~19, 1990.

[53] K. A. Van Orden, T. K. Witte, K. H. Gordon, T. W. Bender, T. E. Joiner, “Suicidal desire and the capability for suicide: Test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among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vol. 76, no. 1, pp. 72-83, 2008.
DOI: https://doi.org/10.1037/0022-006X.76.1.72

[54] M. H. Jo, “An Evaluation of Interpersonal Psychological Model of Suicide in Korean Army,”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10.

[55] K. C. Cukrowicz, J. S. Cheavens, K, A. Van Orden, R. M. Ragain, R. L. Cook,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suicide ideation in older adults,” *Psychology & Aging*, vol. 26, no. 2, pp. 331-338, 2011.
DOI: https://doi.org/10.1037/a0021836

[56] A. T. Beck, A. Weissman, M. Kovac, “Alcoholism, Hopelessness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vol. 37, pp. 66-77, 1976.
DOI: https://doi.org/10.15288/jsa.1976.37.66

[57] T. W. Eom, "Elderly Suicide and It`s Related Factors : Focused o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Mastery in the Effects of Hopelessness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9, no. 2, pp. 355-379, 2007.
DOI: http://dx.doi.org/10.20970/kasw.2007.59.2.014

[58] D. Z. Gregory, W. D. Nancy, G. Z. Sara, K. F. Gordon,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52, no. 1, pp. 30-41, 1988.
DOI: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5201_2

[59] O. S. Kim, “Study of Suicide-Thinking of Solitary Elderly : Focused on Euijeongbu City,”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2009.

[60] A. 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2013.

[61] M. J. Yang, S. J. Cho, “An Analysis related with Suicide Impulse according to Family Intimacy of Aged People in a Metropolis and a Fishing Village,”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2, pp. 801-806,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2.801

[62] N. Krause, “Negative Integration and Satisfaction with Social Support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vol. 50, no. 2, pp. 59-73, 1995.
DOI: https://doi.org/10.1093/geronb/50B.2.P59

[63] J. H. Bae,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Rural Elderly: Focusing on the Function of Support by Their Children and Neighbors,” Social Welfare Polocy. vol. 20, pp. 197-216, 2004.

[64] H. T. Chae, “The Current Conditions and Improvement Devices of the Formal Networks for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vol. 10, no. 2, pp. 185-206, 2004.

전 영 선(Young-Sun Jeon) [정회원]

- 2014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14년 9월 : 대구여성의 전화 성교육센터 강사

<관심분야>
노인상담, 노인복지, 여성상담, 여성복지

허 창 구(Chang-Goo Heo) [정회원]

- 2002년 8월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산업심리전공 석사)
- 2010년 2월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산업심리전공 박사)
- 2010년 3월 ~ 2013년 2월 :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 2013년 3월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스트레스, 정서노동, 직무동기